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ccessibility to Korean Diaspora Literature

박진희 (Jin-hee Park)*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탐색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료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 현황을 검토하고, RISS와 C대학 도서관의 OPAC 서지정보 구조를 비교하였으며, C대학 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아스포라 문학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저작과 번역서 간의 관계 서지정보의 제공과 KORMARC의 연관저록 필드를 활용한 저작 간 링크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저자 식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 전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문학 형식, 특정 장르, 표제의 특정 용어, 저자명·원저자명, 등장인물 및 내용 관련 주제명 등 기존에 부여되던 주제명뿐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과 검색 행태를 반영한 주제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링크 정보의 가시성 제고, OPAC 내 교육·안내 기능의 직관적·시각적 구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sers' search behaviors for Korean diaspora literary works and proposes strategies to improve access to these materials. The classification practic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reviewed, the OPAC bibliographic structures of RISS and C University Library were compared, and a user survey was conducted at C University Library. Th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systematic relational bibliographic information between original works and their translations, along with enhanced linking functions through KORMARC related-record fields. National authority data should be used to ensure accurate author identification, and subject headings should incorporate not only existing bibliographic elements but also user-oriented topics that reflect actual search interests. Improving the visibility of link information, providing intuitive and visually oriented OPAC guidance, and strengthening online and offline book curation services are also essential for enhancing users' search effectiveness.

키워드: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OPAC, 서지정보, 주제명, 링킹

Korean Diaspora Literature, OPAC, Bibliographic Information, Subject Headings, Linking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초빙교수(july74@naver.com / ISNI 0000 0004 6814 0149)

논문접수일자 : 2026년 2월 9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3월 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1): 29-51,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1.029>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국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KDC와 DDC는 주제분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총류의 대부분과 문학 작품은 예외적으로 총류는 표현형식에 따라, 문학은 원저작의 언어와 작품의 표현형식을 우선하여 분류한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258).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인계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경우도 원저작의 언어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분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한인계 저자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해당 작품을 한국문학 범주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분류 담당 사서 역시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가 현지 언어와 한국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 작품의 언어적·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국내 문학계와 출판계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로 작품성 중심으로 논의되던 디아스포라 문학이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인 작가가 영어·일본어·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창작한 작품이 국내에서 번역·출판되면서, 이들 작품은 저자의 민족적 정체성, 창작 언어, 출판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복잡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 번역문학과 구별되며, KDC와 DDC가 채택하고 있는 '언어 중심 분류 규정'과 이용자가 작품을 '한국문학' 혹은 '한인 작가의 문학'으로 탐색하려는 기대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만들어낸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분류 규정이 반영하는 언어적 기

준과 이용자가 기대하는 문화적·정체성 기반 탐색 방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에서 기존 문학 작품과 동일한 분류·배가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용자 탐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쉬운 장르로, 접근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지숙(2022)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이산인(離散人)로서의 특성과 창작 언어의 다중성에서 찾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KDC 810(한국문학)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문학을 포괄하는 '한민족 문학'을 분류할 수 있는 별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인계 디아스포라 문학을 기존 분류체계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탐색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OPAC에서 제공되는 서지 정보가 탐색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이용자 행태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문학 중에서도 원저작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로 창작된 디아스포라 문학은 KDC 810(한국문학)에 일괄 배가되므로 탐색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창작된 작품은 언어·국적·출판국가 상이하여 분류와 탐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문학 전체가 아닌 분류체계와 이용자 탐색방식의 불일치가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례군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어로 창작된 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어 외의 자국어나 외국어로 된

디아스포라 문학'을 통합한 접근성 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분류 규정의 실제 적용이 OPAC의 서지정보(원표제·원저자·언어 표기 및 링크 확장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탐색 성공률과 탐색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지정보 개선을 통한 단기적·중장기적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분류 규정은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배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2) OPAC의 서지정보는 이용자의 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 가능한 접근성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탐색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KDC와 DDC의 문학 분류 규정 및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RISS와 C대학 도서관의 OPAC 서지정보 구조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에 대한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 및 서지정보 제공 현황

본 장에서는 KDC와 DDC의 문학 분류 규정

원칙을 검토한 뒤,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실제 분류 현황을 살펴보고, RISS와 C대학 도서관 OPAC의 서지정보 제공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분류 규정의 적용이 이용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문학 작품의 KDC, DDC 분류 규정

KDC의 문학 분류 규정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원작품에 사용된 언어 아래에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으며,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것은 자국어 문학 아래에 분류한다.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전집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① 저자가 가장 많이 쓴 국어의 문학 아래에 분류하거나 ② 최후의 국적이 있었던 문학 아래에 분류한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258). DDC 역시 “문학 작품은 출생 국가가 아닌 언어에 따라 분류한다(OCLC, 2011, 155)”라고 규정하고 있다.

KDC와 DDC 모두 작가의 출생 국가가 아닌 창작한 언어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여지숙(2022)은 KDC에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창작된 경우와 원작품이 여러 개 국어로 된 작가의 작품을 모아 놓은 전집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한 작가가 여러 개의 언어로 창작한 개별 작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작품이 자국어와 외국어’로 쓰인 경우 특히 도서관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디아스포라 문학 작가의 경우 ‘자국어’를 어떤 언어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에 따라 분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2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 현황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1명의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작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작가 중 원저작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문학 자료의 언어 중심 분류 원리에 따라 분류 및 배가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동일 작품의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이 모두 존재하는 작가를 포함하여, OPAC에서 원서명, 원저자명, 원저작 언어 등의 번역 및 원저 관계 단서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링크로 활성화되어 확장 검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미권 재미문학 5명, 일본어권 재일문학 4명, 독일어권 문학 1명, 러시아권 문학 1명으로 총 11명 작가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결과는

<표 1>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 결과를 보면, 김석범의 『화산도』는 한국문학(KDC 813)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이는 저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작품들은 원작품에 사용된 언어에 따라 영미 문학(843), 일본 문학(833), 독일 문학(853), 러시아 문학(892) 등 해당 언어권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한편, 캐시 박흥의 『마이너 필링스』는 문학 작품이 아닌 사회과학 저작으로서 국가와 사회 그룹(842.3),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320.569) 아래에 분류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작품은 원작품에 사용된 언어에 따른 분류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번역본의 경우, 번역본이 저자명과 역자명, 원표제 등을 통해 원작품과 명확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은 원칙적으로 원작품 언어에 따라 분류하고, 주제나 저자의 국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표 1> 조사 대상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 분류 현황

저자	원저작 언어	번역표제	원표제	국립중앙도서관	
				KDC	DDC
이민진	영어	파친코	Pachinko	843.6	
이창래	영어	영원한 이방인	Native Speaker	843.6	
스토프 차	영어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Your House Will Pay	843.6	
니콜 정	영어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All You Can Ever Know	848	818.6
캐시 박흥	영어	마이너 필링스	Minor Feelings	342.3	320.569
유미리	일본어	타일	Tokyo Ueno Station	833.6	895.635
김석범	일본어	화산도	火山島	813.6	895.734
양석일	일본어	어둠의 아이들	闇の子供たち	833.6	895.635
이희성	일본어	백년 동안의 나그네	百年の旅人たち	833.6	895.634
이미륵	독일어	암록강은 흐른다	Der Yalu fließt	853	853
아나톨리 김	러시아어	초원, 내 푸른 영혼	Степь, мояголубаядуша	892.84	891.7444

258)는 규정을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아 저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813)에 분류되거나, 작품의 주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회그룹(842.3), 인종·민족 집단별 이데올로기(320.569)로 분류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류 담당 사서 역사가 분류 규정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디아스포라 문학의 복합적 속성이 분류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2.3 RISS와 C대학 도서관의 OPAC 서지정보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RISS와 설문 응답자들이 소속된 C대학 도서관의 OPAC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 번역본에 대한 서지정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11권의 번역 문학 자료이며, 비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표제, 원저자명, 원저작 언어의 제시 여부
 - ② 해당 정보 및 주제명에 대한 링크 활성화 여부
 - ③ 저자명 링크를 통한 원저자 검색 가능성
-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저자의 민족적 배경과 창작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작품을 '한국문학'으로 탐색할지, '원작 언어 문학'으로 탐색할지에 대한 인지적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OPAC에서 제공하는 서지정보 중 원표제, 원저자명, 원저작 언어와 같이 원작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의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링크 활성화 여부는 이용자가 원저작, 관련 저작으로 탐색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능적 요소로, 디아스포라 문학처럼 복합적 속성을 가진 자료의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저자명, 표제, 원표제, 주제명은 전거제어의 대상이다. 전거제어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동일 저자의 검색, 표제 표현 및 자연어 표현의 차이로 인한 분산된 관련 자료와 동일 주제의 통합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이다(이경호, 김정현, 2024, 406).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경우, 다양한 언어의 저자명, 원본 및 번역본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의 전거데이터 구축 수준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전거 대상에 대한 전거 데이터 구축에도 일관성이 없어 자료가 분산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는 전거통제의 존재나 기능을 알지 못한 채, OPAC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와 링크 기능을 통해 탐색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거통제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전거 대상 서지정보에 대한 링크 활성화 여부가 이용자의 탐색 경험과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거통제의 지향하는 기능과 별개로 현행 OPAC 환경에서 링크가 사실상 확장 탐색의 접근 경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원표제, 원저자명, 주제명에 대한 링크 활성화 여부를 분석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은 단순히 서지정보 유무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고, 관계 정보의 제시, 서지정보의 연결성, 검색 확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두 기관의 OPAC에서 제시하는 서지정보를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서지정보 제시 현황

저자	번역표제	RISS						C대학도서관					
		원표제	원표제 링크	원저자명	저자 링크	언어 주기	주제명 링크	원표제	원표제 링크	원저자명	저자 링크	언어 주기	주제명 링크
이민진	파친코	○	X	○	○	X	○	○	○	○	○	○	○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	X	X	○	X	○	X	X	X	○	X	X
스토프 차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	X	○	○	X	○	○	○	○	○	X	○
니콜 정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	X	○	○	X	○	○	○	○	○	○	○
캐시 박홍	마이너 필링스	○	X	○	○	X	○	○	○	X	○	○	○
유미리	타일	○	X	X	○	X	○	○	○	○	○	X	X
김석범	화산도	○	X	○	○	X	○	○	○	○	○	X	X
양석일	어둠의 아이들	○	X	○	○	X	○	X	X	X	○	X	X
이회성	백년 동안의 나그네	○	X	○	○	X	○	X	X	X	○	X	X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	X	X	○	X	X	X	X	X	○	X	X
아나톨리 김	초원, 내 푸른 영혼	X	X	X	○	X	X	○	○	○	○	○	○

원표제 제시 여부와 관련하여 RISS는 11권 중 10권이 원표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링크는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어 원표제를 통한 확장 검색이 불가능하다. C대학 도서관에서는 7권에 대해 원표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원저작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C도서관이 원저작에 대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원저자명과 관련해서는 RISS는 7명의 저자, C대학 도서관은 6명의 저자에 대해 원저자명을 제시하였으나, 링크는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번역본 저자명 링크를 통해 원저자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거데이터를 통한 동명이인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검색 결과가 제시되고 있었다.

원저작 언어의 제시 여부와 관련하여 RISS는 언어주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원작 언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C대학 도서관은 4

권에 대해 언어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명 제시 및 링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RISS는 9권, C대학 도서관은 5권에 대해 주제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링크가 활성화되어 주제명을 통한 확장 검색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두 기관 모두 번역본의 저자명 링크를 통해 원저자 검색이 가능하며, 주제명 링크도 활성화되어 있어 확장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RISS는 원표제와 원저자명을 제시하면서도 링크를 활성화하지 않아, 이용자가 원저작을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C대학 도서관은 원표제, 원저자명 뿐만 아니라 원저작 언어도 제시하고 있으며, 원표제에 대한 링크의 활성화로 직접적인 원작과의 연결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검색 편리성 및 확장 검색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기관에서 11권의 번역본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제명 데이터는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대상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주제명 제시 현황

저자	번역표제	RISS	C대학 도서관
이민진	파친코	미국 현대소설, 파친코, 이민진, 미국문학, 미국소설	미국 현대소설[美國現代小說]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미국문학, 미국소설	
스테프 차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Kore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Police shootings, Families	Kore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Policeshootings Families
니콜 정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Adopted children, Adoption, Adopted children, Interracial adoption, Asian Americans, Race awareness in children	Adopted children --United States --Biography Adoption--UnitedStates--Biography Adopted children --Familyrelationships--UnitedStates--Anecdotes Interracialadoption--UnitedStates--Anecdotes AsianAmericans--Ethnicidentity--Anecdotes Raceawarenessinchildren --UnitedStates--Anecdotes Chung, Nicole
캐시 박홍	마이너 펄링스	인종차별, 인종갈등	Hong,CathyPark Asian Americans --Biography Asian American women --Biography Poets, American --21st century --Biography
유미리	타일	문학, 타일, TILE	
김석범	화산도	화산도, 대하소설, 일본문학, 일본소설, 역사소설	
양석일	어둠의 아이들	일본 현대소설, 일본소설	
이회성	백년 동안의 나그네	일본 현대소설[日本現代小說]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압록강, 흐른다, DER, YALU, ELIESST, 압록강은 흐른다	
아나톨리 김	초원, 내 푸른 영혼	초원, 영혼	러시아 문학[--文學], 자전적수필[自傳的隨筆]

OPAC에서 제시된 주제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범주의 주제명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11권의 작품에는 ‘문학, 미국 현대소설, 미국 문학, 러시아 문학, 일본 문학, 일본 소설, 일본 현대소설’과 같이 국가·시대 별 문학 형식을 나타내는 주제명과 ‘대하소설, 역사소설, 자전적 수필, Biography, Anecdotes’와 같은 특정 장르를 나타내는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었다. 둘째, ‘파친코, 타일, TILE, 화산도, 압록강, 흐른다, 압록강은 흐른다, Yalu, ELIESST’와 같이 표제의 특정 용어를 주제명

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표제 용어 가운데 불필요한 독일어 정관사 ‘DER’가 포함되거나, ‘흐른다’를 의미하는 독일어 ‘lieBest’가 ‘ELIESST’로 잘못 표기된 오류도 발견되었다. 셋째, ‘이민진, Chung, Nicole, Hong, Cathy Park’과 같이 저자명이나 원저자명을 주제명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넷째, 세 권의 작품에서는 ‘Kore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Families, Adopted children, Asian Americans’와 같은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주제명, ‘Police shootings, Adoption, Interracial adoption, Race awareness

in children, 인종차별, 인종갈등'과 같은 사건 즉, 작품의 내용을 지칭하는 주제명이 제시되어 있었다. C대학 도서관은, 'Adopted children -- Family relationships -- United States -- Anecdotes, Interracial adoption -- United States -- Anecdotes, Asian Americans -- Ethnic identity -- Anecdotes, Race awareness in children -- United States -- Anecdotes, Adopted children -- United States -- Biography, Adoption -- United States -- Biography'와 같이 '주제명-지리-형식'의 3단계 구조인 보다 세분화된 LCSH 방식의 주제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부 작품에는 'Kore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Asian Americans' 등 민족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Korean diaspora', 'Diaspora Literature', 'Ethnic identity', 'Immigrants', '디아스포라'와 같이 디아스포라 문학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주제명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주제명 부여가 디아스포라 문학의 핵심 속성인 이동성, 이중 정체성, 이주 경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용자가 해당 작품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탐색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3.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에 대한 이용자 행태 분석

3.1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탐색행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OPAC 서지정보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탐색적 증거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표본의 한계로 인해 일부 하위집단 분석은 통계적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가설 생성과 실무적 단서 제공을 주된 목표로 한다.

설문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C대학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Google Forms로 실시되어 총 112명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설문은 여러 단과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양 과목 학생들을 포함해 배포되었으나, 실제 응답은 인문계열에 편중되어(인문 77명, 68.8%) 표본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 문항은 도서관 OPAC 검색 방법,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경험, 상세 서지정보 활용도, 탐색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 요구 등 네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2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별 응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검색 경험 여부는 '경험 있음'과 '경험 없음'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유의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에는 총 112명이 참여하였다. 분석에 앞서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과 도서관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소속 대학은 인문대학이 77명(6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 10명(8.9%),

사범대학과 의과대학이 각각 6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상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각각 3명(2.7%), 간호대학 2명(1.8%), 자연과학대학 1명(0.9%)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 응답은 4명(3.6%)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3.2 도서관 OPAC 검색 방법

이용자들의 도서관 OPAC 검색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 OPAC 상세보기 확인 빈도이다.

도서관 이용 빈도의 경우, '월 1~3회'가 38명(3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 1회 이상'이 37명(33.0%), '분기 1~2회'는 23명(20.5%), '거의 이용하지 않음'은 13명(11.6%)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자료 검색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253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02건(40.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가에서 직접 둘러보기(브라우저)'가 63건(24.90%)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포털(네이버, 구글 등)로 먼저 검색 후 도서관 확인'은 58건(22.92%)으로 나타났다. 반면, 'RISS, 학술 DB 등에서 검색'은 18건(7.11%), '사서에게 문의'는 12건(4.7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6〉 참조).

OPAC에서 상세보기 확인 빈도에 대해 분

〈표 4〉 설문 응답자의 일반 특성

구분	문항	N	%
소속 대학	인문대학	77	68.8
	사회과학대학	10	8.9
	자연과학대학	1	0.9
	농업생명과학대학	3	2.7
	사범대학	6	5.4
	의과대학	6	5.4
	간호대학	2	1.8
	경상대학	3	2.7
	기타	4	3.6

〈표 5〉 도서관 이용빈도

문항	N	%
거의 이용하지 않음	13	11.6
분기 1~2회	23	20.5
월 1~3회	38	33.9
주 1회 이상	37	33.0
결측값	1	0.9

〈표 6〉 자료 검색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

문항	N	%
도서관 홈페이지	102	40.32
서가에서 직접 둘러보기(브라우저)	63	24.90
포털(네이버, 구글 등)로 먼저 검색 후 도서관 확인	58	22.92
RISS, 학술DB 등에서 검색	18	7.11
사서에게 문의	12	4.74

석한 결과, 상세보기를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50.89%,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9.6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은 3.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자료 검색 시 상세보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3.3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경험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 빈도에 대

해 분석한 결과, 검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41.07%, 검색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58.9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회' 검색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7.50%로 가장 높았으며, '3~5회' 검색한 경험은 3.5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8〉 참조).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은 국내 이용자들이 번역본을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번역본을 읽은 후 원저작이나 관련 저작으로 탐색을 확장하려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표 7〉 OPAC 상세보기 확인 빈도

문항	N	%	M	SD
전혀 확인하지 않음	5	4.46	3.44	1.080
드물게 활용	17	15.18		
보통	33	29.46		
자주 활용	38	33.93		
매우 자주 활용	19	16.96		
계	112	100.00		

〈표 8〉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

문항	N	%
1~2회	42	37.50
3~5회	4	3.57
전혀 없음	66	58.93
계	112	100.00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작과 번역본 간의 연계 정보가 부족할 때 이용자가 탐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원작·번역본 간의 연계 제시 여부를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검색 경험에 따른 동일 작품의 원작·번역서 연계 제시 부족으로 인한 탐색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t-검정 결과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평균은 3.98로,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디아스포라 문학을 실제로 검색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검색 결과에서 동일 작품의 원작·번역서가 연계되어 제시되지 않을 때, 이를 탐색 과정의 불편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9〉 참조).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 탐색 시 우선 고

려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복수 응답으로 수집된 188건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품의 주제(이민, 정체성, 디아스포라 등)'를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0.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추천 도서, 수상 도서, 베스트셀러 등 외부 정보'가 27.13%, '작품의 언어(한국어, 영어, 기타 등)'가 21.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가의 민족·국적·이주 배경'은 17.02%, '출판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는 3.7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10〉 참조).

원저서가 외국어인 경우에도 한국문학 영역에서 번역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용자는 33.04%,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7.50%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은 2.86으로, 5점 척도 기준에서 '보통(3)'보다 낮은 수준

〈표 9〉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원작·번역서 연계 부족으로 인한 탐색 어려움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p
	N	%	N	%		
그렇지 않다	7	10.6	2	4.3	-2.885	.005
보통이다	21	31.8	6	13.0		
그렇다	32	48.5	29	63.0		
매우 그렇다	6	9.1	9	19.6		
M	3.56		3.98			
SD	.806		.715			

〈표 10〉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시 우선 고려 기준

문항	N	%
작품의 주제(이민, 정체성, 디아스포라 등)	58	30.85
추천도서, 수상 도서, 베스트셀러 등 외부 정보	51	27.13
작품의 언어(한국어, 영어, 기타 등)	40	21.28
작가의 민족·국적·이주 배경	32	17.02
출판 국가(한국, 미국, 중국 등)	7	3.72

에 해당한다. 이는 한인 작가의 외국어 작품 번역본이 한국문학 영역에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표 11> 참조).

한국문학 영역에 해당 자료가 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자료 미소장으로 인지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6.79%,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57.14%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은 2.52로, 5점 척도에서 '보통(3)'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문학 영역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즉시 '미소장'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특정 분류 영역만을 근거로 소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다른 분류 영역이나 추가적인 검

색 경로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디아스포라 문학이 특정 분류 영역에 배가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색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2> 참조).

원저작의 언어에 따른 분류 규정으로 인해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을 겪은 경험을 분석한 결과,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5.89%,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45.5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은 2.7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작 언어에 따른 분류 규정이 이용자들의 탐색 과정에서 뚜렷한 혼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이용자들이 분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표 11> 한인 작가 번역본을 한국문학 영역에서 찾을 것이라는 기대 정도

문항	N	%	M	SD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16	14.29	2.86	1.150
기대하지 않았다	26	23.21		
보통이다	30	26.79		
기대했다	31	27.68		
매우 기대했다	6	5.36		
결측치	3	2.68		
계	112	100.00		

<표 12> 한국문학 영역에 없을 때 자료 미소장으로 인지하는 정도

문항	N	%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25	22.32	2.52	1.237
그렇지 않다	39	34.82		
보통이다	15	13.38		
그렇다	23	20.54		
매우 그렇다	7	6.25		
결측치	3	2.68		
계	112	100.00		

어렵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분류 규정을 탐색의 주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3〉 참조).

도서관에서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를 찾는 과정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자료 탐색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2.14%,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3.21%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은 3.04로, 5점 척도에서 '보통(3)'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는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 탐색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렵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용자에게는 자료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탐색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원저작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번호로 배가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저작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자료의 위

치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자료가 어느 분류 영역에 배가되어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여러 검색 경로와 분류 영역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표 14〉 참조).

3.4 상세 서지정보 활용

상세 검색 결과화면에서 '주제(키워드/주제명)' 정보 확인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정보를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55.36%,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2.32%이며 응답자 평균은 3.4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은 도서관 상세 검색 결과화면에서 자료의 주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5〉 참조).

〈표 13〉 원저작 언어 분류로 인한 자료 탐색 혼란 경험

문항	N	%	M	SD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10	8.93	2.72	.974
잘 경험하지 않았다	41	36.61		
보통	31	27.68		
자주 경험했다	28	25.00		
매우 자주 경험했다	1	.89		
결측치	1	.89		
계	112	100.00		

〈표 14〉 디아스포라 문학자료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문항	N	%	M	SD
전혀 어렵지 않았다	7	6.25	3.04	.879
어렵지 않았다	19	16.96		
보통이다	50	44.64		
어렵게 느꼈다	35	31.25		
매우 어렵게 느꼈다	1	.89		
계	112	100.00		

〈표 15〉 상세검색 결과화면에서 '주제(키워드/주제명)' 정보 확인 빈도

문항	N	%	M	SD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5	4.46	3.45	1.097
확인하지 않는다	20	17.86		
보통	25	22.32		
자주 확인한다	44	39.29		
매우 자주 확인한다	18	16.07		
계	112	100.00		

키워드(주제명) 항목을 클릭해 확장 검색하는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기능을 검색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40.18%, 검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6.60%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은 3.04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키워드(주제명)를 활용한 확장 검색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표 16〉 참조).

도서관 검색에서 주제명(키워드) 항목을 눌러 확장 검색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복수 응답으로 수집된 184건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0.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검색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가 26.63%,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져서'가 21.7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원하는 자료와의 관련성이 낮다

고 느껴서'는 10.87%, '확장 검색 방법을 몰라서'는 7.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주제명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는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장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과 검색 과정이 번거롭다고 인식하는 점임을 나타낸다(〈표 17〉 참조).

검색 결과에서 상세 검색의 원저작 언어, 원문 관련 정보 확인 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23.21%, 검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46.4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은 2.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시되는 원저작 언어 및 번역 관련 세부 정보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표 18〉 참조).

〈표 16〉 주제 정보 클릭을 통한 확장 검색 빈도

문항	N	%	M	SD
전혀 안한다	12	10.71	3.04	1.204
잘 안한다	29	25.89		
보통	26	23.21		
검색한다	32	28.57		
매우 자주 검색한다	13	11.61		
계	112	100.00		

〈표 17〉 주제명(키워드) 클릭을 통한 확장 검색 미활용 이유

문항	N	%
평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7	30.98
검색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49	26.63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져서	40	21.74
원하는 자료와 관련성이 낮다고 느껴서	20	10.87
확장 검색 방법을 몰라서	14	7.61
주제명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4	2.17

〈표 18〉 검색 결과에서 원작 언어·원문 정보 확인 빈도

문항	N	%	M	SD
전혀 안한다	17	15.18	2.65	1.071
잘 안한다	35	31.25		
보통	34	30.36		
검색한다	22	19.64		
매우 자주 검색한다	4	3.57		
계	112	100.00		

3.5 탐색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 요구

원저작 언어, 주제, 원표제, 원저자명 등 상세 서지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가 제공될 경우의 유용성 기대치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91.07%가 유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값 역시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용자들이 서지 정보 활용과 관련된 안내가 제공될 경우, 자료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9〉 참조).

FAQ·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의 유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안내가 유용할 것으로 응답한 이용자가 83.04%로 나타났으며, 평균값 역시 4.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은 FAQ나 카드뉴스와 같은 시각적·요약형 안내 자료가 제공될 경우,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0〉 참조).

〈표 19〉 상세 서지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안내의 유용성 기대치

문항	N	%	M	SD
유용하지 않다	2	1.79	4.19	.637
보통이다	8	7.14		
유용하다	69	61.61		
매우 유용하다	33	29.46		
계	112	100.00		

〈표 20〉 FAQ·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에 대한 유용성

문항	N	%	M	SD
전혀 유용하지 않다	1	0.89	4.11	.857
유용하지 않다	6	5.36		
보통이다	11	9.82		
유용하다	55	49.11		
매우 유용하다	38	33.93		
결측치	1	0.89		
계	112	100.00		

온라인 기반의 큐레이션 목록(웹페이지나 리스트) 제공의 유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3%가 이러한 목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4.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은 자료 탐색 시 온라인 기반의 큐레이션 정보가 제공될 경우, 탐색 효율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오프라인 도서 전시나 북큐레이션 제공의 유

용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유용할 것으로 응답한 이용자가 86.61%로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4.1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자료 탐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서비스 항목에 대한 유용성 분석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표 21〉 온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정보 제공의 유용성

문항	N	%	M	SD
유용하지 않다	2	1.79	4.10	.710
보통이다	17	15.18		
유용하다	61	54.46		
매우 유용하다	32	28.57		
계	112	100.00		

〈표 22〉 오프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제공의 유용성

문항	N	%	M	SD
전혀 유용하지 않다	3	2.68	4.16	.865
유용하지 않다	2	1.79		
보통이다	10	8.93		
유용하다	56	50.00		
매우 유용하다	41	36.61		
계	112	100.00		

이다. 그러나 <표 8>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제시한 유용성 평가 결과가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인식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색 경험 유무에 따라 각 서비스의 유용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상세 서지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안내의 유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검정 결과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평균은 4.35로, 검색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서지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안내가 더욱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23> 참조).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FAQ, 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의 유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검정 결과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 값을 살펴보면,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평균은 4.22로, 검색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4.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는 검색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FAQ, 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을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표 23>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상세 서지정보 활용 교육·안내의 유용성 차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p
	N	%	N	%		
유용하지 않다	1	1.5	1	2.2	-2.264	.026
보통이다	7	10.6	1	2.2		
유용하다	44	66.7	25	54.3		
매우 유용하다	14	21.2	19	41.3		
M	4.08		4.35			
SD	.615		.640			

<표 24>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FAQ·카드뉴스 안내 자료 유용성의 차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p
	N	%	N	%		
전혀 유용하지 않다	0	0.0	1	2.2	-1.161	.248
유용하지 않다	4	6.1	2	4.4		
보통이다	9	13.6	2	4.4		
유용하다	34	51.5	21	46.7		
매우 유용하다	19	28.8	19	42.2		
M	4.03		4.22			
SD	.822		.902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온라인 기반의 큐레이션 목록 제공의 유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검정 결과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평균은 4.37로, 검색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온라인 기반 큐레이션 목록 제공을 더욱 유용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25〉 참조).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오프라인 기반의 북큐레이션 제공의 유용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t-검정 결과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검색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평균

은 4.20으로, 검색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4.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는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 여부와 관계 없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기반의 북큐레이션 제공을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6〉 참조).

4. 결론 및 제언

4.1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탐색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표 25〉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온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유용성의 차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p
	N	%	N	%		
유용하지 않다	2	3.0	0	0.0	-3.550	.000
보통이다	14	21.2	3	6.5		
유용하다	38	57.6	23	50.0		
매우 유용하다	12	18.2	20	43.5		
M	3.91		4.37			
SD	.717		.610			

〈표 26〉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검색 경험에 따른 오프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유용성의 차이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p
	N	%	N	%		
전혀 유용하지 않다	2	3.0	1	2.2	-.355	.723
유용하지 않다	0	0.0	2	4.3		
보통이다	7	10.6	3	6.5		
유용하다	35	53.0	21	45.7		
매우 유용하다	22	33.3	19	41.3		
M	4.14		4.20			
SD	.839		.910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 및 서지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작품은 원저작 언어에 따른 분류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었으나, 일부 자료에서는 저자의 국적과 주제에 따라 분류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둘째, RISS와 C대학 도서관의 OPAC 서지 정보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 모두 번역본의 저자명 링크와 주제명 링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확장 검색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거데이터를 통한 동명이인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많은 검색 결과가 제시되었다. 한편 RISS의 경우, 원표제와 원저자명을 제시하면서도 링크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언어주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주제명의 경우, 문학 형식과 특정 장르, 표제의 특정 용어, 저자명·원저자명, 등장인물 및 내용 관련 주제명 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 특정 장르만 제시하거나 표제의 특정 용어를 의미 분석 없이 그대로 주제명으로 사용하는 등 주제명 부여의 깊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자의 검색 행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OPAC 검색 방법과 관련하여 자료 검색 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가에서 직접 둘러보기', '포털 검색 후 도서관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OPAC 상세보기 확인 빈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자료 선택 과정에서 상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경험과 관

련하여 응답자의 58.93%가 검색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검색 경험 여부에 따른 동일 작품의 원작·번역서 간 연계 정보 부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검색 경험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연계 정보가 제시되지 않을 때, 이를 탐색 과정의 불편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시 우선 고려하는 기준은 작품의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추천 도서·수상 도서·베스트셀러 등 외부 정보, 작품의 언어 순으로 나타났다. 한인 작가의 외국어 작품 번역본을 한국문학 영역에서 찾을 것이라는 기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분류 영역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즉시 '미소장'으로 판단하기보다 다른 분류 영역이나 추가적인 검색 경로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원저작 언어에 따른 분류 규정으로 인한 혼란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이용자들이 분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라기보다 분류 규정을 탐색의 주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 탐색의 난이도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료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워 탐색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상세 서지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주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제명 클릭을 통한 확장 검색의 활용 빈도는 낮았다. 주제명 클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검색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과 검색 결과가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탐색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상세 서지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안내, FAQ·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북큐레이션 제공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검색 경험 유무에 따른 서비스 유용성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검색 경험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서지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안내와 온라인 기반 큐레이션 목록 제공을 더욱 유용하게 평가하였다. 한편 검색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 역시 FAQ·카드뉴스 형태의 안내 자료 제공과 오프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제공을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4.2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저자 국적과 주제에 따른 분류 사례는 분류 담당 사서의 분류 규정에 대한 세부적 숙지와 정확한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설문 결과는 분류기호 표기 자체보다 OPAC의 원표제·원저자·원저작 언어 표기 및 해당 항목의 링크 활성화가 이용자의 확장 검색과 탐색 편의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분류 담당자 교육을 통해 분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서지정보의 가시성과 연결성 강화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검색 성공률과 탐색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아스포라 문학 작

품의 접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OPAC의 상세 서지 정보가 이용자의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역 작품의 경우, 동일 작품의 원작과 번역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LRM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입체적 관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KORMARC 환경에서도 일부 구현이 가능하다. KORMARC에서는 URI를 직접 기술할 수 있는 식별기호가 없기 때문에 각 레코드의 연관저록 필드에 관계정보와 해당 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해당 레코드로 이동하는 링크를 활성화하여 '원작 보기/번역 보기/관련자료 보기 등'의 형태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저작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전거를 활용하여 원저자의 생몰년 등 전거정보를 전거레코드에 기술함으로써 동명이인 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편목 담당 사서들이 연관저록필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편목 매뉴얼에 이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으로 링크 정보에 대한 수동 검수를 통해 링크 오류와 동명이인 혼동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명은 개별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를 세밀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용자가 해당 주제를 포함한 자료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이다(노지현, 2015, 397). 그러나 주제명 부여 과정에서는 자료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색인자나 목록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제, 그리고 이용자가 실제 검색에서 사용하는 주제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Maron의 논의를 소개한 Rondeau는 이러한 차

이를 고려해 볼 때, 주제명은 이용자의 검색 행태를 반영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ondeau, 2014, 20).

따라서 문학 형식, 특정 장르, 표제의 특정 용어, 저자명·원저자명, 등장인물 및 내용 관련 주제명 등 다양한 주제명과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주제명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orean diaspora’, ‘Diaspora Literature’, ‘Ethnic identity’, ‘Immigrants’, ‘디아스포라’와 같은 주제명을 적용하면 디아스포라 문학임을 보다 명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지숙(2022)의 연구에서도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을 별법으로 한국문학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별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제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IFLA 지침에서도 동일한 주제명을 가진 저작을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주제명 표목의 링크 제공은 이용자가 주제 기반으로 검색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고 용이한 기능으로 평가된다(백지원, 정연경, 2014, 45). 따라서 주제명 정보에 대한 링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 친숙하고 명확한 주제명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확장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제명 부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세 서지정보 중 링크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링크가 존재하더라도 화면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강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지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OPAC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안내 기능이 보다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FAQ나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안내 자료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매체는 이용자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제 탐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서지정보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용자의 도서 및 정보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도서의 대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김혜련, 2025; 서승희, 차성중, 2025).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북 큐레이션을 시행할 때에는 단순한 목록 제시 방식이나 전시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가 브라우징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동선과 관심사를 고려한 상시적 행사 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용자들은 자료 탐색 시 온라인 검색과 오프라인 탐색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서가 브라우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서가 탐색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기반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이러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의 분류·서지정보와 이용자 탐색행태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응답자 총수는 112명이었으나 '디아스포라 문학을 직접 검색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하위집단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 결과는 탐색적 증거로 해석해야 하며, OPAC 서지정보가 분류 규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실무적 가능성

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확장한 양적 연구와 이용자 관찰·심층 인터뷰 등 질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 제안과 같은 분류체계 차원의 장기적 대안 외에, OPAC 상세 서지정보의 강화와 링크 기능 활성화를 통한 단기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혜련 (2025). 공공도서관 추천 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329-353. <http://dx-doi-org.proxy.jbnu.ac.kr/10.14699/KBIBLIA.2025.36.3.57345>
- 노지현 (2015). 주제명 데이터를 통해 본 현행 목록의 품질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79-402. <https://doi-org.proxy.jbnu.ac.kr/10.16981/kliss.46.201512.379>
- 백지원, 정연경 (2014).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검색 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31-51. <http://dx-doi-org.proxy.jbnu.ac.kr/10.3743/KOSIM.2014.31.1.031>
- 서승희, 차성중 (2025). 전문대학도서관의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2), 97-127. <http://dx-doi-org.proxy.jbnu.ac.kr/10.14699/kbiblia.2025.36.2.097>
- 여지숙 (2022).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 분류현황 분석 및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85-304. <http://dx-doi-org.proxy.jbnu.ac.kr/10.16981/kliss.53.2.202206.285>
- 이경호, 김정현 (2024). 자료목록법(제 7판). 대구: 태일사.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제6판). 제3권: 해설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OCLC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Vol. 4: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Dublin: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 Rondeau, S. (2014). The life and times of aboutness: a review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Evidence Based Library & Information Practice, 9(1), 14-35. <https://doi.org/10.18438/B80K6W>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 Chung, Yeon-Kyoung (2014). A study on improving access & retriev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ubject heading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31-51.
<http://dx-doi-org.proxy.jbnu.ac.kr/10.3743/KOSIM.2014.31.1.031>
- Kim, Haeryoung (2025). A study on the impact of public library recommended books and curated books on borrow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329-353.
<http://dx-doi-org.proxy.jbnu.ac.kr/10.14699/KBIBLIA.2025.36.3.5734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lassification Committee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 Vol. 3: Manual.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Kyungho & Kim, Junghyun (2024). *Cataloging Rules (7th ed.)*. Daegu: Taelisa.
- Rho, Jee-Hyun (2015). A study on the quality of subject data in library catalog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79-402.
<https://doi-org.proxy.jbnu.ac.kr/10.16981/kliss.46.201512.379>
- Seo, Seung-Hee & Cha, Sung-Jong (2025). A Study on us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activating book curation programs in college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97-127.
<http://dx-doi-org.proxy.jbnu.ac.kr/10.14699/kbiblia.2025.36.2.097>
- Yeo, Ji-suk (2022).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e classification status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285-304.
<http://dx-doi-org.proxy.jbnu.ac.kr/10.16981/kliss.53.2.202206.285>

